

연예인도 모르는 연예인의 실체와 현실

연예인의 결과 속

배국남 지음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스타'에 대중들은 열광한다. 과거에 길거리 캐스팅과 잡지 표지 모델, 광고 등을 통해 부상했다면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과 연예 기획사의 육성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진다. 우선 유명 기획사 연습생이 되려면 일명 '아이돌 고시'를 통과해야 한다. 일부는 수년간의 '무명' 시절을 열정과 끊임없는 연습으로 견디며 뒤늦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스타로 급부상했다가 음주운전과 마약, 성추문, 대형 스캔들 등으로 인해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기도 한다. 네티즌의 무차별적인 악플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도 다수다.



최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그랜드 파크에서 열린 '롤라팔루자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하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박희트뮤직 제공)

하는 주역이자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한류의 주체"라고 말한다.

한국 대중문화의 변천사와 명멸하는 스타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온 저자는 연예인 지망생 증가와 연예 기획사의 약진 등에 대해 심도있게 진단한다. 1990년대 이후 대중문화 시장이 급성장하고, 연예기획사가 '스타시스템의 핵심 주체'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2000년대 들어 여러 방송사에서 경쟁적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작하면서 연예인 지망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연예인의 성공은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 수십만 명의 연예인 지망생 가운데 엄청난 부와 명예를 부여받은 스타 비율은 불과 0.01%. 미국 할리우드 역시 12년 동안 2만 명의 단역배우중 스타 대열에 합류한 이는 12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5억 원대 43만6590원. 한 미니시리즈의 스타급 배우와 6등급 배우의 회당 출연료는 극단적이다.

저자는 "대중문화와 한류의 화려한 성공과 스타와 대형 연예기획사의 찬란한 성취의 이면에는 연예인 지망생 공화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지적한다. 성매매 강요와 금품 갈취 등 연예계 데뷔를 꿈꾸는 젊은 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늘고 있다. '연예인 지망 광풍의 또 다른 얼굴'이다.

BTS 노래와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신간 '연예인의 결과 속'은 대중문화 팬들과 한류 팬들의 연예인과 스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줌은 물론 연예계 지망생, 대중문화 연구자, 문화산업종사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저자는 "연예기획사와 대중매체 그리고 연예인 메이커들이 스타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시스템과 건강한 연예인 문화를 구축해갈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메시지를 던진다.

〈신사우동 호랑이·1만8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학교 속 문해력 수업=최근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인 '문해력'이 화두다. 수능과 대학수학 그리고 사회생활에서도 중요한 문해력은 단순히 책을 읽고 문장을 이해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전주 완산고등학교 사회 교사인 저자 박재원이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개한다. 과학적 읽기와 뇌과학의 이해 등을 통해 문해력을 다스림 발견할 수 있다. 〈EBS북스·1만7000원〉



▲쓰는 습관=글을 잘 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 저자인 일본의 프리랜서 기자 이시카와 유키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으며 자기다운 글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글 앞에 막막한 이들을 위해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을 일깨우고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습관의 기술을 알려준다. 〈뜨인돌·1만4000원〉



▲자연은 우리가 살찌기를 바란다=저자 리처드 J. 존슨은 의사이자 임상과학자로 25년간 활동해 왔다. 특히 당뇨 및 당뇨에 함유된 프럭토스가 비만과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비만이 왜 생겨나고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등 비만과 관련된 질병에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나선다. 〈시프·2만5000원〉

▲다크=에마 호턴의 스릴러 장편 소설. 자동차사고로 약혼자를 잃고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응급 의학과 의사 케이트 노스는 유엔 남극 기지 의사에 지원한다. 남극기지에 도착한 그녀는 자신의 전임자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죽음에 석연치 않는 점이 있다는 의심을 키워가게 된다. 지구상에서 가장 광활한 밀실에서 벌어지는 냉혹한 살인 사건. 〈침미래·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지구의 시=과학은 어렵고 따분한 과목으로 생각되기 일쑤다. 하지만 편식이 몸에 좋지 않듯 과학 또한 일상생활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되는 학문이다. 과학을 재미있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책으로 언론인이면서 어린이를 위한 시를 쓰는 작가 하비에르가 바람, 밀물과 썰물, 별뿔별 등 지구라는 행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자연 현상을 안내한다. 〈나무의말·1만5000원〉

어떡하냐는 고민에 빠진다. 깨끗하지 않아서 오해가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정결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친구의 단점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뜨인돌어린이·1만2000원〉

▲구수 구수 쿨쿨 냄새의 제왕=2학년 바름이는 세상에서 축구가 가장 좋다. 그러나 축구를 열심히 할수록 바름이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몽글몽글 피어난다. 축구왕이 아닌 냄새의 제왕으로 유명해지면

▲지구는 왜 23.5도 기울어졌을까?=풀과 바람 과학생각 시리즈 네 번째 책. 지구와 별, 태양계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풍부하고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짚어보고 나아가 해당 영역에 대해 심도있는 정보를 배워 볼 수 있다. 초등학교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지구 과학 필독서로 누구나 알고 싶은, 지구에 대한 모든 지식이 담겼다. 〈풀과바람·1만3000원〉

힐링과 희망의 메시지...가장 따뜻한 '동네서점'

오늘도 고바야시 서점에 갑니다

가와카미 데쓰야 지음, 송지현 옮김

"이 책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음 따뜻해지는 서점 이야기"가 펼쳐진다. "유미코 씨의 모든 이야기가 마음을 울린다" 책에 대한 독자들의 리뷰는 책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먼저 읽고 리뷰를 다는 이들의 평가는 대체로 적확하다.



일본에서 영화로 제작되고 소설로도 창작된 서점이 있다. 바로 고바야시 서점이다. 지난 1952년 개업해 올해로 70년이 된 서점이 주인공이다. 이 고바야시 서점을 힘들 때마다 달려가고 싶은 서점

으로 표현하는 이가 있다. 일본 전역의 서점을 취재해 '서점에서 정말 있었던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의 저자 가와카미 데쓰야는 서점을 사랑하는 작가다. 이번에 펴낸 '오늘도 고바야시 서점에 갑니다'는 위안과 희망을 주는 따뜻한 동네서점에 대한 책이다.

'2022 가장 기대되는 힐링 소설', '70년 된 동네 서점의 감동 실화'라는 세간의 평이 말해주듯 소설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책은 고바야시 서점의 실제 이야기와 픽션을 결합한 소설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 서점의 주인은 유미코다. 그녀는 부모님으로부터 서점을 물려받은 지 약 40년이 흘렀다. 중심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손님이 찾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유미코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점을 찾는 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저자가 유미코를 알게 된 것은 일본 전역의 서점을 취재하면서였다. 처음에는 단순히 간단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었지만 취재를 하면서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다른 서점과 함께 묶어낼 것이 아니라 별도로 고바야시 서점 이야기를 책으로 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곳 서점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뜨겁다'는 점이다. 주인공 유미코가 한적한 곳에 자리한 서점을 운영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찾아오는 이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녀는 대지진 이후 무너져 가는 서점을 살리기 위해 장사를 시작한 일, 작은 서점을 연대에 어려움을 극복했던 사례 등을 이야기한다. 자칭 스스로를 '수다쟁이'라고 말하는 그녀는 마치 어제 있었던 일처럼 실감나게 들려준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그녀가 얼마나 서점을 사랑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지 알 수 있다. 〈현익출판·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품질보증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방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